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271

JCCT 2022-9-33

## 베트남 유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사회적지지, 사회적 현존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ocial Support, and Social Existence on Quality of Life for Vietnamese Students

윤지원\*, 제남주\*\*, 화정석\*\*\*, 박미라\*\*\*\*

Ji-Won Yoon\*, Nam-Ju Je\*\*, Jeong-Seok Hwa\*\*\*, Mee-Ra Park\*\*\*\*

**요약** 본 연구는 국내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사회적 현존감, 삶의 질을 파악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 수집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25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결과에 대한 유의수준은 .05로 측정하여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연령은 '24세-27세'가 가장 많았고,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년은 4학년이 가장 많았고, 성격은 '외향적'이, 대인관계 갈등경험은 '때때로', 한국거주기간은 '4년 이상-5년 미만'이, 한국어능력 수준은 '3급'이 가장 많았다. 둘째, 베트남 유학생의 삶의 질은 평균 3.52점(5점 만점)이었고, 긍정심리자본은 평균 3.98점(6점 만점), 사회적 지지는 2.96점(4점 만점), 사회적 현존감은 3.59점(5점 만점)이었다. 셋째, 베트남 유학생의 삶의 질의 경우, 성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검증 결과 '외향적' 집단이 '혼합형' 집단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대인관계갈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검증 결과 '갈등 없음' 집단이 '갈등 자주' 집단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넷째, 대상자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성격(외향적) 순이었다.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33.2%였다.

**주요어** : 베트남 유학생,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사회적 현존감, 삶의 질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prepare basic data for international students with Vietnamese nationality in Korea to identif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ocial support, social presence, and quality of life and to prepare support measures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Data collection is from May 1, 2021 to June 30, 2021, and was condu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for anonymity and convenience. For data analysis, the IBM SPSS/25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and the significance level for the results was measured as .05, and the reliability of each measurement tool was calcul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ge of the subjects was '24 years old-27 years old', and women accounted for the majority. In the fourth grade, the fourth grade was the most, with "outgoing" personality, "sometimes" experiences of interpersonal conflict, "more than four years and less than five years" in the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and the level of Korean proficiency was "grade three." Second, the average quality of life of Vietnamese international students was 3.52 points (out of 5 point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as 3.98 points (out of 6 points), social support was 2.96 points (out of 4 points), and social presence was 3.59 points (out of 5 points). Third, in the case of the quality of life of Vietnamese international studen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ir personality, and as a result of post-verificati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xtroverted' group was higher than the 'mixed'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interpersonal conflict, and as a result of post-examination, the "no conflict" group had a higher quality of life than the "conflict frequent" group. Fourth, the factors that most affected the subject's quality of life were social suppor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ersonality (extroverte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33.2%.

**Key words**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ocial Support, Social Existence, Quality of Life

\*정회원, 창신대학교 카리스교양대학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참여저자)  
\*\*\*정회원, 경상국립대학교 의학과 교수 (참여저자)  
\*\*\*\*정회원,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7월 31일, 수정완료일: 2022년 8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8일

Received: July 31, 2022 / Revised: August 25, 2022  
Accepted: September 8, 2022  
\*\*\*\*Corresponding Author: minerva32@cs.ac.kr  
Dept. of nursing, ChangshinUniv, Korea

## I. 서론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52,281명으로 그 중 학위 과정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수는 120,018명으로 78.8%를 차지한다(교육부, 2021.4.1. 기준).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 유학생의 비율(수)은 49.8%(59,774명)이고, 베트남 유학생은 20.8%(24,984명)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1]. 정부는 'Study Korea Project'를 발표하며[2] 우수 유학생 유치 노력에 힘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외국인 유학생 수의 양적팽창은 이루어졌으나 이들의 문화적 차이나 다양한 환경 요인들로 인하여 대학생활 부적응이나 중도탈락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3].

일반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은 유학생생활을 하는 동안 의사소통, 문화적 차이, 이방인으로서 경험하는 차별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유학생들이 한국생활 및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6].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생생활 적응은 외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발전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로 낙관주의 및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력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8]. 긍정심리자본은 자신의 발전을 바라는 긍정 심리상태를 뜻하고, 개인 차원 또는 조직 차원의 과업 성공, 목표 달성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본이다[9]. 즉,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심리적 강점을 발휘하여 바람직한 행동과 사고를 함으로써 목표에 대한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결국 삶의 만족도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10]. 타인들에 의해 제공된 자원으로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되고, 좌절을 극복하도록 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사회적 지지는 유학생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제공 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와 지지 자원을 파악하여 그들의 사회적 지지 체계가 유지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연구를 살펴보면 유학생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학생들의 적응,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외적인 요인으로 의미 있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에서 나아가 타인에 대한 감각이나 타인과의 연결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사회적 현존감이다. 사회적 현존감은 타인에 대한 감각이나 타인과의 연결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중 매개된 환경에서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서로 직접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지각되는 정도이다[11]. 사회적 현존감은 커뮤니케이션 상대와 친밀감의 평형상태를 이루는 데 영향을 미친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지각"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12]. 외국인 유학생들은 긍정적심리자본이나 사회적 지지, 사회적 현존감을 바탕으로 삶의 질이 결정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중도 탈락 및 이탈 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삶의 질에 기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유학생들의 삶의 질이 좋다면 대학생활 및 유학생생활에도 만족하고, 나아가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에게 집중되어 연구되어 왔다. 베트남 유학생은 중국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 국가의 출신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연구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베트남 유학생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각적인 연구는 꼭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사회적 현존감, 삶의 질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 베트남 유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국내 대학의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으로 광고문을 통해 모집하였다. 선정기준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만 19세 이상, 베트남어로 된 질문지 내용을 읽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베트남 대학생이며 어학연수생 및 교환학생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설문문과 연구동의서, 설문지는 정확성을 위하여 한국에서 10년 이상 유학하면서 한국어교육 및 한국어통번역 전공을 한 한 베트남인에게 의뢰하여 전부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였다. 참여 희망자가 설문지 URL에 접속하여, 연구목적과 연구 참여자의 권리, 연구에 관한 윤리적 사항 등을 읽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동시에 쓰인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편의표집 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평균 20분이며 작성 완료된 설문지는 자동으로 수거되었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 program[13]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15, 독립변수 11개를 설정하여 계산하였을 때, 123명이었다. 그러나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48명을 초기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부실한 11부를 제외한 13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구글(Google) 온라인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사회적 현존감, 삶의 질을 측정하는 9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14]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연령, 성별, 종교, 학년, 성격, 대인관계,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능력 수준(TOPIK) 등 총 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긍정심리자본 측정도구는 이미나[15]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도구는 Luthans, Youssef, Avolio[16]가 개발하여, Luthans, Luthans, 그리고 Jensen[17]이 대학생의 상황에 맞게 보완한 도구를 김주섭[18]이 한국 대학생의 상황에 맞게 보완한 것이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은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며, 각 요인별로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주섭[18]의

연구에서의 전체적 신뢰도 Cronbach's  $\alpha = .93$ 이었고, 이미나[15]의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 ,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 였다.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이 개발하고 조명실[20]이 수정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개 하위 요인의 25문항,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20]에서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 .9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사회적 현존감은 황하성[21]이 제작한 사회적 현존감 척도를 기준으로 이민채[22]에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상호이해 4문항, 공동 공간감 3문항, 정서적 유대감 2문항,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이다. 선행연구[22]에서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연구도구는 박범석[23]의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판 WHOQOL-BRIEF 도구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부정적 질문에 해당하는 항목(3, 4, 26번 문항)은 6점에서 해당 항목 점수를 빼 값을 해당 점수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계산되도록 하였다. 4개의 영역(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 관계적 영역, 환경적 영역),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선행연구[23]의 연구에서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관계적, 환경적 영역 각각의 Cronbach's  $\alpha = 0.75, 0.78, 0.65, 0.79$ 이었고, 전체적인 신뢰도는 제시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IRB No.: CSIRB-R2021006)을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의 자율성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연구목적, 진행 절차,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 소요 시간은 20분 정도이며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도중에 연구 참여를 포기할 수 있고, 중도포기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온라인 자료는 password가 있는 파일에 저장하여 연구자 외의 접근을 제한하고 설문지 파일은 연구 종료 후 3년 동안 보관한 후 삭제할 것이며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조사 자료는 숫자화 하여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비밀과 익명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25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결과에 대한 유의수준은 .05로 측정하였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구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24세-27세'가 69명(50.4%)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성' 103명(75.2%), '남성' 34명(24.8%)으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년은 '4학년'이 44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1학년' 39명(28.5%), '2학년' 35명(25.5%), '3학년' 19명(13.9) 순이었다. 성격은 '외향적' 59명(43.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7)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r)	20-23	52(38.0)
	24-27	69(50.4)
	28-30	16(11.7)
Gender	Male	34(24.8)
	Female	103(75.2)
Religion	Yes	31(22.6)
	No	106(77.4)
Grade	1	39(28.5)
	2	35(25.5)
	3	19(13.9)
	4	44(32.1)
Character	Extrovert	59(43.1)
	Introvert	26(19.0)
	Mixed	52(38.0)
Conflict experience	None	19(13.9)
	Sometimes	101(73.7)
	Frequent	17(12.4)
Period of residence in Korea(yr)	≥1 - <2	27(19.7)
	≥2 - <3	36(26.3)
	≥3 - <4	18(13.1)
	≥4 - <5	49(35.8)
	≥5	7( 5.1)
Korean proficiency\(\degree)	1	6( 4.4)
	2	7( 5.1)
	3	52(38.0)
	4	41(29.9)
	5	19(13.9)
	6	12( 8.8)

'혼합적' 52명(38.0%), '내성적' 26명(19.0%) 순이었다. 대인관계 갈등경험은 '때때로' 101명(73.7%)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어거주기간은 '4년 이상-5년 미만'이 49명(35.8%), 한국어능력은 '3급'이 52명(38.0%)으로 가장 많았다.

#### 2.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사회적 현존감, 삶의 질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은 전체 평균 3.98점(6점 만점)이었고, 사회적 지지는 2.96점(4점 만점), 사회적 현존감 3.59점(5점 만점), 삶의 질은 3.52점(5점 만점)이었다[표 2].

표 2.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사회적 현존감, 삶의 질 (N=137)  
Table 2. Subject'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ocial support, social existence, and quality of life (N=137)

Variables	Mean±SD	Min	Max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3.98±0.66	2.17	5.46
Social support	2.96±0.62	1.08	4.00
Social existence	3.59±0.73	1.33	5.00
Quality of life	3.52±0.57	1.92	4.81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사회적 현존감, 삶의 질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사회적 현존감, 삶의 질은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경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F=3.66, p=.028$ ),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인관계갈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F=3.26, p=.041$ ), 사후검증 결과 '갈등 없음' 집단이 '갈등 자주' 집단보다 긍정심리자본이 높았다. 그 외 제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성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F=5.52, p=.005$ ), 사후검증 결과 '외향적' 집단이 '혼합형' 집단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 그 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적 현존감은 성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F=3.38, p=.037$ ), 사후검증 결과 '외향적' 집단이 '혼합형' 집단보다 사회적 현존감이 높았다. 그 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현존감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삶의 질의 경우, 성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F=8.33, p<.001$ ), 사후검증 결과 '외향적' 집단이 '혼합형' 집단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대인관계갈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사회적 현존감, 삶의 질

Table 3.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ocial support, social existence,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137)

Characteristics	Categori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ocial support		Social existence		Quality of life	
		M±SD	t(ρ)/F(ρ)	M±SD	t(ρ)/F(ρ)	M±SD	t(ρ)/F(ρ)	M±SD	t(ρ)/F(ρ)
Age(yr)	20-23	3.95±0.74	2.14 (.121)	2.91±0.66	0.41 (.662)	3.58±0.89	0.77 (.464)	3.53±0.65	0.01 (.990)
	24-27	4.07±0.55		2.97±0.60		3.64±0.59		3.52±0.52	
	28-30	3.70±0.71		3.07±0.58		3.39±0.71		3.51±0.51	
Gender	Male	3.98±0.73	-0.03 (.969)	3.07±0.71	1.21 (.227)	3.54±0.80	-0.43 (.667)	3.56±0.66	0.39 (.695)
	Female	3.98±0.63		2.92±0.59		3.60±0.71		3.51±0.54	
Religion	Yes	3.89±0.65	-0.83 (.403)	3.05±0.59	0.97 (.330)	3.67±0.84	0.69 (.486)	3.50±0.54	-0.23 (.816)
	No	4.01±0.66		2.93±0.63		3.56±0.70		3.53±0.58	
Grade	1	4.01±0.69	0.09 (.965)	2.97±0.65	2.17 (.094)	3.56±0.83	0.64 (.589)	3.52±0.69	0.26 (.847)
	2	3.99±0.73		3.13±0.51		3.73±0.75		3.60±0.59	
	3	4.00±0.53		3.03±0.52		3.59±0.60		3.47±0.58	
	4	3.94±0.63		2.78±0.68		3.50±0.67		3.50±0.42	
Character	Extrovert <sup>a</sup>	4.15±0.62	3.66 (.028)	3.15±0.59	5.52 (.005) a>c	3.77±0.73	3.38 (.037) a>c	3.74±0.52	8.33 (<.001) a>c
	Introvert <sup>b</sup>	3.84±0.66		2.88±0.64		3.53±0.72		3.43±0.48	
	Mixed <sup>c</sup>	3.86±0.66		2.78±0.59		3.41±0.70		3.33±0.58	
Conflict experience	None <sup>a</sup>	4.23±0.60	3.26 (.041) a>c	3.25±0.51	2.51 (.085)	3.90±0.55	2.53 (.083)	3.79±0.49	4.11 (.018) a>c
	Sometimes <sup>b</sup>	3.98±0.62		2.92±0.56		3.56±0.71		3.52±0.51	
	Frequent <sup>c</sup>	3.68±0.80		2.84±0.95		3.38±0.94		3.26±0.82	
Period of residence in Korea(yr)	≥1 - <2	3.71±0.62	1.83 (.125)	2.84±0.63	1.28 (.278)	3.38±0.84	1.83 (.127)	3.46±0.50	0.42 (.791)
	≥2 - <3	3.95±0.72		2.85±0.61		3.53±0.75		3.52±0.69	
	≥3 - <4	4.06±0.71		3.16±0.59		3.95±0.70		3.42±0.67	
	≥4 - <5	4.09±0.58		3.00±0.60		3.59±0.66		3.60±0.49	
	≥5	4.26±0.62		3.18±0.66		3.76±0.25		3.54±0.34	
Korean proficiency (degree)	1	3.83±0.76	2.19 (.059)	3.32±0.57	1.65 (.151)	3.38±0.84	0.83 (.530)	3.51±0.38	0.59 (.701)
	2	4.13±0.72		2.96±0.63		3.58±0.73		3.29±0.47	
	3	3.85±0.68		3.08±0.62		3.65±0.84		3.55±0.67	
	4	4.06±0.53		2.88±0.55		3.55±0.57		3.50±0.50	
	5	3.87±0.68		2.70±0.70		3.38±0.72		3.45±0.53	
	6	4.47±0.66		2.92±0.65		3.87±0.62		3.752±0.52	

보였고(F=4.11,  $p<.018$ ), 사후검증 결과 ‘갈등 없음’ 집단이 ‘갈등 자주’ 집단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그 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사회적 현존감, 삶의 질의 상관관계

긍정심리자본은 사회적 지지( $r=.41$ ,  $p<.001$ ), 사회적 현존감( $r=.58$ ,  $p<.001$ ), 삶의 질( $r=.45$ ,  $p<.001$ )와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현존감( $r=.68$ ,  $p<.001$ ), 삶의 질( $r=.49$ ,  $p<.001$ )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삶의 질은 사회적 현존감( $r=.49$ ,  $p<.001$ )과 순상관관계가 있다[표 4].

표 4.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사회적 현존감, 삶의 질의 상관관계 (N=137)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ocial support, social existence, and quality of life (N=137)

	1	2	3	4
	$r(\rho)$			
1	1			
2	.41 (<.001)	1		
3	.58 (<.001)	.68 (<.001)	1	
4	.45 (<.001)	.49 (<.001)	.49 (<.001)	1

- 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2. Social support
- 3. Social existence
- 4. Quality of life

5.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있었던 성격, 대인관계갈등,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사회적 현존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성격, 대인관계갈등은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단계적 입력(Stepwise) 방식으로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정하기 위해 공차 한계가 0.1 이상 되는지 확인 한 결과, 공차한계 .42-1.0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고, 분산팽창계수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10 이상을 넘지 않는지 확인한 결과, VIF 1.00-2.38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로 확인한 결과, d=1.944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였다. 대상자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 $\beta=.326, p<.001$ ), 그 다음으로 긍정심리자본( $\beta=.265, p=.001$ ), 성격 '외향적'( $\beta=.173, p=.020$ ) 순이었다.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33.2%였다( $F=17.86, p<.001$ )[표 5].

표 5.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quality of life (N=137)

	B	SE	$\beta$	t	p
(Constant)	1.625	.270		6.00	<.001
Character(Extrovert)*	0.199	.085	.173	2.35	.020
Conflict experience(None)*	0.124	.118	.075	1.04	.297
Social support	0.299	.073	.326	4.11	<.00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0.230	.068	.265	3.39	.001
$R^2= .351, \text{Adj } R^2= .332, F=17.86, p<.001$					

\*Dummy variable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베트남 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연령은 '24세-27세'가 가장 많았고,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년은 4학년이 가장 많았고, 성격은 '외향적'이, 대인관계 갈등경험은 '때때로', 한국 거주기간은 '4년 이상-5년 미만'이, 한국어능력 수준은

'3급'이 가장 많았다.

둘째, 베트남 유학생의 삶의 질은 평균 3.52점으로 5점 척도의 중간값 3점보다 조금 높았다. 긍정심리자본은 평균 3.98점(6점 만점)이었고, 사회적 지지는 2.96점(4점 만점), 사회적 현존감 3.59점(5점 만점)이었다.

셋째, 베트남 유학생의 삶의 질은 성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F=8.33, p<.001$ ), 사후검증 결과 '외향적' 집단이 '혼합형' 집단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대인관계갈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F=4.11, p=.018$ ), 사후검증 결과 '갈등 없음' 집단이 '갈등 자주' 집단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넷째, 대상자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 $\beta=.326, p<.001$ ), 그 다음으로 긍정심리자본( $\beta=.265, p=.001$ ), 성격 '외향적'( $\beta=.173, p=.020$ ) 순이었다.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33.2%였다. 이 결과는 중국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24, 25]에서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강력하게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사회적 지지는 4점 만점에 2.96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26]의 결과(3.61점/5점 만점)와도 일치한다. 특히 베트남인들은 정서적, 정보적, 애정적 지지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물질적 지지 수준은 가장 낮았다.

제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요인이 유학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27]에서는 평가적 지지, 그리고 물질적 지지를 많이 받을 수록 일반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 하면서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가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 만족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사회적 지지임을 밝힌 본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며, 유학생들의 일반생활에 대한 적응과 유학 만족은 결국 삶의 질로 연결됨을 뒷받침해 준다. 또한, 선행연구[27]에서는 어학능력이 높은 유학생들이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유학의 만족도도 더 높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향적 성격 집단이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고, 한국어 능력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어학능력이 높을수록 유학 만족도가 높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과 삶의 질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지만, 일반대학생[28]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9]에서 긍정심리

자본이 삶의 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적인 심리역량을 자본화하여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일으키며 다양한 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적응을 하게 함으로 [30]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결국에는 삶의 질의 향상에까지 이르게 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사회적 현존감, 삶의 질의 관계를 확인해봄으로써 아직까지 1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더욱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는 점, 유학생의 중도탈락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그들의 삶의 질을 확인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성격 등이 그 요인임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내용은 COVID-19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진행되었고, 국내 베트남 유학생 중 일부만 참여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함에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베트남 유학생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를 토대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학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2021 Basic Education Statistics Key Content Data(2021.08.27.). <https://moe.go.kr>. 2021.
- [2]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of Study Korea Project. 2008.
- [3] H. J. Chu. Learning experie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36, pp.135-159. 2010.
- [4] Y. B. Cho & D. H. Lee. Moderating Effects of Ego-defense Mechan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in a Sample of Chinese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9(3), pp.141-158. 2018.
- [5] H. R. Yu & B. K. Kim.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elf - disclosure, Accultural-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of Chines Students in Korea: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4(3), pp.55-83. 2016.
- [6] J. Chen. Factors related to Chinese Students'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Journal of Transactional Analysis & Counsel, 4(1), pp.75-94. 2014.
- [7] W. J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the Quality of Life on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in Korea, Master Thesis. Hansei University. 2016.
- [8] Luthans, F., Luthans, K. W. & Luthans, B. C.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Business Horizons, 47(1), pp.45-50. 2004.
- [9] M. S. Ji & S. B. Lee. The Effect of Kindergarten Teacher's Empathy Ability on Job Stress throug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CCT, 7(1), pp.240-255. 2021.
- [10] M.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l support and stress coping behavior. Master Thesis. HongIk University. 2009.
- [11] Short, J. A., Williams, E., & Christie, B. The Social Psychology of Telecommunications. London: John Wiley & Sons, Ltd. 1976.
- [12]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QOL Study Protocol. 1993; WHO(MNH/PSF/93.9). WHO, Geneva.
- [13]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 A. G.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 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pp.1149-1160, 2009.
- [14] S. Y.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Instrument for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2017.
- [15] M. N. Lee.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ur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Education. 2020.
- [16] Luthans,, F. Youssef, C. M., Avolio, B. J.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17] Luthans, B. C. Luthans, K. W. & Jensen, S. M. The impact of business school students'

- psychological capital on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87(5), pp.253-259. 2012.
- [18]J. S. Kim.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Employment-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6(4), pp.31-59. 2013.
- [19]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1985.
- [20]M. S. Cho. The Influence of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late Adolescence.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007.
- [21]H. S. Hwang. Development of Social Presence Measurement of Mediated Social Interaction: A Case Study of Instant Messagin”,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7(2), pp.529-561. 2007.
- [22]M. C. Lee. The effect of social existence sense based on social support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f dance major on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Master Thesis. Kyunghee University. 2014.
- [23]B. S. Park. Compared the quality of life of medica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andrelated factors, Master Thesis. Gachon University. 2014.
- [24]K. E. Lee, Y. H. Yom & H. K. Chang. Influence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pp.514-523. 2011.
- [25]B. J. Kim. The impact of acculturation stress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among migrant worker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Master Thesis. Kangnam University. 2018.
- [26]N. D. Rivera. Acculturation,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Keimyung University. 2015.
- [27]J. Y.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and Social Supportive Factors of International Students on the Satisfaction of Studying Abroad-Focused on Environment Adaptation of Korean and Chinese Students as Mediating Variables. Chungbuk University. 2019.
- [28]L. Liu, Y. Chang., J. Fu., J. Wang., & L. Wang.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association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nese physicians: a cross-sectional study. *BMC Public*. pp.1417-2458. 2012.
- [29]D. W. Ko & B. G.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riousness in Leisure Experienc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for Leisure, and Life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17(1), pp.179-198. 2016.
- [30]Luthans, F., Luthans, K. W., & Luthans, B. C.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going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Business Horizon*, 47, pp.45-50. 2004.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창신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창신-2021-030).